

## 道 행정편의 수의계약... 행정사무감사 있으나 마나

이동업 경북도의원 5분자유발언  
경북도 무책임한 행정실태 폭로  
3년간 도체육회 수의계약 90%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역시  
241건, 37억176만원 달하는 계약  
예산·지출 동일 관행적 수의계약



경북도의 관행적 행정편의주의 수의계약이 병폐다.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이 여전한 탓이다.

때문에 이동업(사진) 경북도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들추어 내고 경북도에 맹폭을 가했다.

그는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작심한듯 쓰아부쳤다.

이 도의원은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을 문제삼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실태가 화를 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부정적인 수의계약 사례를 유형별로 꼬

집어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경북도체육회 수의계약의 90%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한 사실도 알렸다.

계약 방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강행규정하고 있다.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 도의원은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는 없다. 단서조건에만 부합되면 전문·신속·지역특수성과 무관하게 수의계약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악습은 뿌리뽑아야"한다고 집행부를 향해 매질을 가했다.

이 도의원은 계약편중 감소, 공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래야만 관행적 계약에서 벗어나 경북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청렴한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김성용 기자



영양군, 삼성라이온즈와 함께하는 영양군민의 날 행사. 영양군은 삼성라이온즈와 함께하는 영양군민의 날 행사를 지난 3일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가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사구한 뒤 삼성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영양군제공) **관련기사 6면**

### 말 산업 중심도시 상주 위상 온누리 퍼져

제40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개최  
명실상부 승마도시 입지 확고히 구축

10~12일, 생활체육 및 유소년 경기는 17~19일 펼쳐진다.

장애물 경기는 경기장 내에 설치된 각종 장애물을 순서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넘어야 하는 경기로, 높이에 따라 100~150 클래스 경기에 500경기가 진행된다.

마장마술은 가로 60m, 세로 20m 마장에서 일정하게 정해진 운동(전진, 정지, 후진, 평보, 속보, 구보 등)을 얼마나 정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가를 평가하는 경기이다.

이번 경기에는 A·B·C·D·S-1·S-3 클래스로 200경기 정도, 생활체육 및 유소년 경기는 D 클래스, 유소년 포니 D·F 클래스로 진행된다.

올해 상주시는 제3회 경북승마협회장배 전국승마대회를 시작으로, 제3회 경북지사배, 2024년 전국생활체육대회 등 굵직한 전국승마대회를 상주국제승마장에서 열렸다.

앞으로 정기통장군배 외 9개 대회가 예정돼 있다.

상주시가 명실상부한 승마도시로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했다.

대회는 대한승마협회 주최, 경북승마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말 산업 중심도시 상주의 위상이 한껏 올랐다.

제40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가 상주국제승마장에서 막 올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국내에서 가장 큰 대회인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를 상주에서 거듭 개최하게 돼 뜻깊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승마대회 유치와 승마인프라를 구축, '말 산업의 중심도시, 승마도시 상주' 이미지를 한층 더 높여나간다고 말했다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에는 국내 공인 승마대회 중 최고의 전통과 규모를 자랑한다.

지난 4일 열린 대회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장애물 경기는 4~6일, 마장마술은



### 의성군민 원하는 활력 넘치는 희망도시 건설

군정 만족도 조사  
거주민족도 80.2%  
행정만족도 77.3%  
의성발전도 81.4%  
지역발전 저해요인  
인구 감소 62.1%...

의성 주민들 80%가 의성군에 살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다. 이 사실은 의성군이 실시한 군정만족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군은 지난달 11~29일 의성에 사는 만 18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2020~2024년) 군정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을 7일 발표했다.

조사는 △거주민족도 △군정인식도 △행정 운영 만족도 △공공시설 및 문화행사 만족도 △행정수요 △행정조직 평가 등이다. 거주민족도 80.2%, 현재 의성군 발전 평가 76.5%, 향후 의성군 발전 전망 81.4%, 행정 만족도 77.3%로 군민들의 의성군정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군이 선택과 집중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공영 주차장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주민자치회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온누리터), 아동돌봄 서비스 등 군민들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주환경 개선에 힘을 쏟은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62.1%로 가장 높았다.

확충이 시급한 필수 인프라는 보건·의료, 교육·보육, 교통환경, 문화시설 순으로 나타나 향후 군정 방향 수립 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정주민족도 제고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계속 노력하겠다. 군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활력 넘치는 희망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KPO리서치에 의뢰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반영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직접 면접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이다. 박재성 기자

### 대구서 첫 전세사기 피해자 목숨 끊었다

8번째 사망... "가족 두고 떠났다"  
전세보증금 8400만원 한푼도 못 받아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세 사기를 입은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한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7일 애도 성명을 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사망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8번째이다.

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전세사기·강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일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7일 애도 성명을 냈다. 조여은 기자



단체장 일정



오도창 영양군수는 8일 오후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영양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8일 오전 부남면 남관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24 부남면 호 한마음 및 민민체육대회'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 봄, 영양으로 GO!

##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5월 9일(목) - 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주최: 영양군  
주관: YFTC 영양축제관광재단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5월 8일 수요일 2

## 군위군,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훈련 실시

군위군은 지난 3일 부계면 동산리 일원 산사태취약지역에서 군위경찰서, 강북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사태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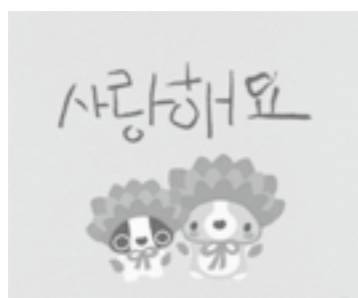
지역 거주민에게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난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켰다. 군위군 산림새마을과에서는 산사태 위기 징후를 파악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예비 경보발령 및 주민대피명령을 내리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주민들은 지정 대피소로 대피해 대피경로를 확인하고, 산사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산사태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성 기자



# ‘대구 효심으로 물들다’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

8일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에서 개최  
효행상 수상자 등 어르신 400여 명 참석



대구시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오후 2시 대구 은행 제2본점 대강당(칠성동 소재)에서 경로효 친 상상을 높이며, 효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과 감사 공연을 개최 한다. 어버이날은 ‘어머니날’이 1973년 ‘어버이날’로 개칭되며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부모와 노인 공경까지 아우르는 경로효친의 미덕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대구시는 매년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버지 에 대한 존경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어버이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 내빈과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효심으로 물

들다’는 주제로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 식전 행사로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포토존이 운영되며, 기념식은 효행 유공자 시상, 기념사·축사, 어버이날 감사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치매나 질병으로 편찮으신 부모님을 지극 정성으로 간병하고 모시며 이웃 어르신들까지 살뜰히 보살펴 온 효행자 4명과 지역사회 어르신을 보살피고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1개 단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재열(대구, 51년생), 대구시장 표창에 도화숙(중구, 64년생), 오정순(서구, 60년생), 김무현(북구, 86년생), 의흥면 청년회(군위군)이다. 한편 각 구·군에서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종교단체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가 열리며, 민간단체 등에서도 어버이날을 전후해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사회에 귀감이 되어 주신 효행 유공자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젊은 날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북구청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4분의 기적

북구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3일 북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 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주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상시 운영되고 있는 교육장

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은 「대구시 심폐소생술」 www.dandicpr.c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이론 및 가슴압박·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심폐소생술은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응급처치인 만큼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교육을 통해 안전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조미경 기자

## 중구가족센터, 가정의달 기념 ‘찾아간데이’ 운영

8일 청라힐스자이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

중구청과 중구 가족센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8일 청라힐스자이 109동 앞 광장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찾아간데이(DAY)’를 진행한다. 체험부스는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홍보와 부모와 △자녀 양육태도 검사, △아이돌봄서비스 상담 및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안내, △다문화 체험, △카네이션 만들기, △돌림판·뽕방치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 게임 프로그램

램을 마련해 가족단위의 주민들이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본 행사에 가족이 함께 어울려 체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구 가족센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일에는 극동스타클래스남산(남산로 30)에서 찾아간데이(DAY) 2차 행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대구 중구 가족센터의 가족상담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dgjung.familynet.or.kr/)를 참고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 2024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9일부터 11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  
외식업 등 76개사 180개 부스 참가

대구시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2024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엑스코 2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해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총 76개사 180개 부스가 참여해 밀키트, 서빙 로봇, 무인점포 등의 전시 행사 및 창업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프랜차이즈 매장과 판매 상품을 직접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정보 및 1:1 상담과 현장 계약 시 가맹비 면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8일까지 누리집(www.kfashow.co.kr) 사전 등록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시식·시음 및 밀키트 증정 행사 등 참관객 참여 이벤트를 실시하고, 청년 창업을 계획하는 젊은층에 맞춰 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8000명 이상의 참관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박람회 기간 중 매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 40분 세미나장에서 창업 관련 전문가를 초빙한다.

9일에는 프랜차이즈 창업 필살기와 창업하면서 세금 아끼는 절세 5가지 방법, 10일은 하반기 유망 창업 트렌드와 프랜차이즈 성공비밀과 창업을 위한 법률 체크포인트, 마지막 11일에는 지속 가능하기 위한 생존 창업전략과 창업 상관 입지 분석에 관한 세미나도 운영된다. 안중근 대구시 경제국장은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을 위해 프랜차이즈 시판학교, 브랜드 리뉴얼 등 컨설팅 사업과 박람회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프랜차이즈가 브랜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2023년 말 기준)에 따르면 대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수는 전년대비 4.9% 증가해 570개이고, 가맹점 수는 전년대비 11.6% 증가해 1만2975개다. 조여은 기자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방역로봇 시범사용 사업 선정



공공기관 최초  
비대면 방역 가능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월 말부터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슬산유스호텔에 AI 방역로봇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급기업과 수요기관 매칭 및 시범 사용을 통해 평가하는 사업으로 공단은 공공기관 최초, 인공지능 방역로봇 아담21(약 4500만 원) 무상 시범 사용 사업에 선정되도 임했다. 감염관리 전문기업인 ㈜엔디세이프가 개발한 인공지능 방역로봇 ADAM 21은 강력한

UV-C 램프로 사람의 손이 닿는 모든 물건의 표면과 공기에 있는 세균 및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사물 인지, 경로 탐색 및 회피주행, 자동충전, 음성 기반 동작 안내 및 사용자 친화형 UI인터페이스를 제공으로 방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비대면 방역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숙박과 세미나 및 청소년수련회 등 각종 행사로 운영 중인 비슬산유스호텔에 ‘24시간 비대면 방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김경화 이사장은 “AI 방역로봇 도입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의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동구청, 명사초청 아카데미 한문철 대구 동구 온다

첫 순서 한블리 한문철 특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대구 동구에 온다. 동구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아양아트센터 아양홀에서 2024년 명사초청 아카데미 첫 번째 순서로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

행한다. 한 변호사는 ‘교통사고, 인성으로 예방한다’를 주제로 인성 함양을 통한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 방안 등을 강의한다. 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난해 큰 인기를 얻은

명사초청 아카데미가 올해도 주민들을 찾아가다.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명사초청 아카데미는 21일을 시작으로, 올해 총 4회 진행된다. 강의 신청은 홈페이지(https://80edu.dong.daegu.kr/) 및 전화(053-662-4332)로 하면 된다. 조미경 기자

## 북구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산축하선물지원’ 사업 실시

북구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일 출산장려 관련 동 맞춤형 특화사업인 ‘동천동이 탄생을 축하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대구캠페인 모금액을 재원으로 2024년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50가구에 유아목욕수건, 젓병 세정제 등으로 구성된 출산축하선물을 지원하며, 시작일자와 관계없이 올해 대상자에게는 소급하여 제공하고 있다. 박옥자 민간위원장은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요즘 우리 지역 내에서 태어난 아이의 탄생을 마음 전제가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아 동천동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출산장려사업인데 선물을 받고 좋아하는 젊은 부모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대구행복진흥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설계 ‘두 팔 걷어’

대구시행복진흥원서비스지원센터(이하 대구행복진흥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4 대구시 꿈드림 멘토단, 학습코칭단 합동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 꿈드림 멘토단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학습 및 정책 제안 등 부문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역량과 함께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우선 꿈드림 멘토단은 학교 밖 청소년 출신을 포함해 심리, 사회복지 등 다양한 전공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으로 올해 18명이 위촉되었다.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청취자, 격려자, 조언자, 안내자로서 청소년들의 사회성 함양에 힘을 쏟게 된다. 이어 학습코칭단은 학교 밖 청소년의 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지도·상담과 함께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멘토 모임으로 경북대, 대구교대, 영남대 등 지역 대학생 멘토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2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발대식에서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조여은 기자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5월 8일 수요일 3

## 대구 아파트분양권 전매 2개월 연속 300건 ↑ ...

대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2개월 연속 300건을 넘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3월 대구의 분양권 거래량이 307건으로 전

월(300건)보다 2.3%(7건) 늘어나는 등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 2월, 3개월 만에 회복한 월별 300건 대 거래가 2개월 연속 이어졌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동구(64건), 중구(55건), 북구(49건), 수성구(34건), 서구(22건), 남구(8건), 달성군(2건) 순이다. 대구의 분양권은 2020년 9월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 전매 제한 확대 조치에 따라 3년간 전매가 제한됐으나,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방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6개월로 완화됐다.



# 경북교육청, 기획예산관 신설 예산정보과 없앤다

9월 1일자 조직개편 예고 조직개편 본청 직속 기관 합리적 조직 운영 피하고 교육환경 변화 신속 대응

경북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로 기획예산관 신설을 포함한 3국 3관 13과 1단으로 조직개편을 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3국 2관 14과 1단으로 구성된 본청 조직을 3국 3관 13과 1단체제로 바꾼다. 먼저 창의인재과는 교육국으로, 교육안전과는 정책국으로 옮긴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기획예산관을 신설한다. 기획예산관은 기획 업무와 예산, 교육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산정보과의 예산 관련 업무는 기획예산관으로, 정보운영 업무 중 디지털기반 업무는 창의인재과로, 나머지 정보운영 업무와 정보보호 업무는 정책혁신과로 이관되며 예산정보과는 폐지된다. 정책혁신과는 기획과 교육협력 관련 업무는 기획예산관으로 이관되고, 예산정보과에서 이

관받은 업무를 합쳐 미래교육정보과로 이름이 바뀐다. 창의인재과는 디지털교육 담당과 디지털기반 담당이 신설돼 AI, SW 등 디지털 정보교육 강화에 주력하고, 평생교육과 도서관 업무는 교육복지과로 이관된다. 교육복지과는 기존 업무에 이관받은 평생교육과 도서관 업무를 합쳐 행복교육지원과로 이름이 바뀐다. 학생생활과는 기존의 대안교육 담당이 폐지되고 심리·정서·생명 존중 교육 강화를 위해 마음성장지원 담당이 신설된다. 감사관과 기획예산관에는 감사 업무와 예산 업무를 총괄할 서기관이 배치돼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경북교육청연구원(안동)의 정보 업무를 경북교육청정보센터(경산)로 이관해 정보업무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재구조화로 중복되는 인력은 교육지원청에 배치·활용해 학교 현장의 교육정보 관련 업무가 경감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조직개편으로 본청과 직속 기관의 합리적 조직 운영을 피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 대구교육청 초저출생 해결... 유아 공교육 강화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지원 업무협약

대구교육청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한다. 대구교육청은 7일 북구청, 달성군, 대구과학대와 손잡고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대구지역의 발전과 지역 내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와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유아에게 제공, 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고 학부모들의 자녀 양육 여건도 개선, 지역 발전에도 한몫한다. 대구교육청은 북구청, 달성군, 대구과학대와 공동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참여, 지난 3월 최종 선정, 총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기반 협력 체계 구축 △지역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역기반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돌봄 확대 △유보통합 연계 및 촉진 등 공동협력사항이다.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4개 기관은 유아교육·보육 지역협력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사업을 지원하기로 협의,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내 유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교육청은 거점유치원·어린이집 선정, 교직원 연수 및 장학 등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북구청·달성군)는 유관기관·단체 협력 등 지역 내 인프라를 적극 지원, 지역 특색사업과 학부모 교육을 운영한다. 대구과학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방과후 과정 및 돌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강사를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 초저출생이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태웅 기자

## 도, 가정의 달 농업 6차산업 인증 제품 특판

인증 경영체 판로확보 매출 증가 크게 한 몫



경북도가 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농업 6차(농촌 융복합)산업 안테나숍 7곳에서 '가정의 달 특판' 행사를 연다. 특판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일부 품목 1H, 2H 특판 행사와 구매 금액의 30%에 달하는 사은품 증정 등을 추진한다. 안테나숍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6차 산업 인증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영체의 제품 중

경북도와 대형 유통업체가 품평회 등을 통해 엄선한 770가지(77개 업체)의 농산물 가공품을 전시·판매한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이들에게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다.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도 내에서 생산된 전통 장류, 벌꿀, 한과, 버섯 등 6차산업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경북 농특산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차산업 안테나숍 7개소는 지난해 매출액은 29억 1000만원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한 2016년도 12억 60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각 지점의 경우 6차산업 경영체 제품의 홍보 전시·판매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 반응과 소비 성향을 파악한다. 경영체의 제품 개선과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 6차산업 홍보와 6차산업 인증 경영체의 판로확보와 매출 증가에 크게 한 몫 하고 있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다양한 농특산품 발굴과 판로 다각화로 경북 농업 6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 농식품부 “채솟값 6월에야 평년 수준될 것..."

겨울무·당근, 작황 부진 이달까지 높은 가격 마늘, 농업재해 피해조사 중...6월말 복구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6월부터 노지재배가 출하되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거라고 7일 밝혔다. 그전까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과 양배추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제를 추진하고, 기상이 슈로 품질이 저하된 마늘은 지원사업을 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염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은 후, 시설 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노지는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다. 다음 달 이후 노지 재배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기간은 3~4개월이다. 이 채소류는 겨울에는 제주·전남에서, 여름에는 강원·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

량과 시설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오른 이유로, 지난 2~3월 눈·비의 영향을 들었다. 잦은 눈비로 생산량이 줄고, 품위도 급격히 나빠졌다. 산지 수확 일정이 배추와 당근, 양배추 모두 평년보다 보름 정도 빨라지면서 일평균 공급량이 줄었다. 이른 봄에 수확되는 시설재배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 면적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조량 부족으로 작황 부진까지 겹쳤다. 농식품부는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 비축 품목인 배추, 무 등을 시장에 지속 공급하고 있다. 특히 배추는 봄철 역대 최대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방출한 배추 물량은 4654t으로 최근 5년의 4.7배다.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1표기에 지난달 하순 4732원에서 이달 상순 4671원까지 올랐다. 전년보다 40.4% 높은 수준이다. 배추는 지난달 하순부터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돼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김치 업체의 겨울배추 수요가 높아 당분간 전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 증가했는데, 이달 하순부터 노지 재배량이 빠르게 수확되면 전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양배추도 밀양과 대구 등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돼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일부 지역의 작황이 부진해 당분간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노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3% 늘어 6월부터 수확이 시작되면 전년 수준으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봤다. 양배추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지난달 하순 6157원에서 이달 상순 전년보다 115.2% 오른 5950원까지 치솟았다. 염근채소를 주로 취급하는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2월 잦은 비로 배추·양배추의 정식이 지연돼 5월 중순 출하 공백 및 6월 홍수 출하를 염려했다. 하지만 최근 기상이 양호해 작황이 좋고, 수확시기도 당겨져 순별 출하량도 평탄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겨울 무는 수확기에 잦은 비로 품질이 저하되고, 시설재배 면적도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달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다 다음 달 중순 이후 전복 고장 등에서 노지 재배량이 출하되면 점차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경 기자

## 양잠 농사 풍년 소망... ‘2024 풍잠기원제’ 열어

양잠산업 가치 재확인 양잠농가 미래 비전...

‘2024 풍잠기원제’가 7일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경북잠사곤충사업장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양잠농가, 대한잠사회, 양잠협동조합, 양잠법인, 도내 시군 농업부서 등 도내 양잠농업을 대표하는 지역 양잠관련 단체 대표들과 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김홍구 경북도의회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누에가 첫 뽕잎을 먹는 5월 열리는 ‘풍잠기원제’는 고려시대 역대 왕실에서 지낸 선잠제(先蠶祭)로부터 유래했다.

양잠 농가의 풍년을 소망하고 인류의 의(衣) 생활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희생된 누에의 영혼을 위로하며 양잠 산업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전통 제례의식이다. ‘풍잠기원제’는 상주시 함창향교의 집전으로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의 강신(신을 맞이하는 예절)과 초한례(첫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 채현식 함창향교 전교의 아한례(두번째 잔), 오홍섭 명주잠업 영농조합 법인대표의 종한례(세번째 잔), 누에 첫뽕주기 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조사한 기능성 양잠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북도 기준 누에사육 농가는 261호, 방잠면적 128ha로 전국 1위 최대 양잠산물 생산지이다.

도는 양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우량누에 씨 생산 △동충하초 종균 농가 공급 △누에고치 추출 실크단백질을 활용한 연구 등 양잠농가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기술 연구와 사업 발굴로 고도화된 양잠산업을 육성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미래 가치가 무궁무진한 곤충·양잠분야는 현재 신생명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며 첨단 생명 소재산업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번 풍잠기원제를 통해 양잠산업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양잠 농가에 실질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이끌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성용 기자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최

칠곡군의회 제300회 임시회가 7-14일까지 8 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임시회에서 2024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룬다.

군의회는 애초 계획된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회의일수를 늘렸다. 임시회 주요일정은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3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

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심사를 한다. 1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회기를 마친다. 올해 처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배성도·오종열·이상승·권선호·박남희 군의원 등 5명이 선임됐다.



# 2024 문경찻사발축제 28만여 명 다녀갔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  
성황리 마무리 축제

노력했다.

13만여 명이 축제장 찾아

첫 주말에는 성대한 개막식과 드넓은 1관문 앞에서 펼쳐진 친환경 캠핑체험, 커피사발 이벤트와 루마니아 작가인 다니엘 레쉬의 공개 시연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축제기간 읍면동 시민의 날이 시작되며 관내 지역별로 신명나는 공연과 무대가 광화문 주무대를 가득 채우며 누적 13만 여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특별 행사 '한복패션쇼'

축제의 반란점을 지난 3일에는 축제의 부대 프로그램으로 점촌 문화의 거리에서 한복패션쇼가 열리며 시민들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식전공연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장인이 이끄는 줄타기 한판으로 문화의 거리를 가득 채운 시민들은 이어지는 오방색의 전통한복과 태극기한복이 어우러진 패션쇼를 관람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패션쇼 모델들이 문화의 거리를 가로지르며 진행한 퍼레이드는 이날 패션쇼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차의 향연 '다화경연대회'

축제를 마무리하는 첫 주말 일정으로 4일에 열린 제2회 다화경연대회에서는 수준 높은 작품 경연과 섬세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경북 상주 출신의 박혜경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꽃과 문경도자기 그리고 차의 조화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경연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특별한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사, 축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국발물레경진대회'

5일 열린 전국발물레경진대회는 문경이 전통 도예의 본 고장임을 널리 알렸다. 전통 발물레를 이용해 작품을 창작했던 선조 도공들의 장인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축제기간 중 매년 특별히 여는 대회이다. 전국에서 21명의 일반인 및 도예 전공학생들이 참여해 찻사발 3점과 향아리 1점씩을 90분 동안 전통발물레로 빚어 실력을 겨뤘다. 단국대에 재학 중인 이의영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폐막 행사 황금 찻잔&다원 추첨

축제 폐막날인 6일에는 가은지역아동센터난

타팀, 하랑, 윤운서, 통일 메아리 악단이 공연에 참여하며 축제 마지막 날의 아쉬움을 달렸다. 가은지역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로 구성된 난타팀은 경쾌한 음악에 맞춘 숙련된 북 공연으로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최근 참여한 트로트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트로트 꿈나무로 미래가 밝은 윤운서양은 노련해진 마이크 멘트와 더 성숙한 실력을 보여줬다. 폐막 공연에 이어 진행된 1000만원 상당의 황금 찻잔&다원 추첨에는 각각 문경과 제천의 관광객이 당첨되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2024 문경찻사발축제의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 축제의 철저한 피드백을 거쳐 더 나은 내년 축제를 준비한다. 김동수 기자



## 칠곡군, 시민 삶 질 향상 중점... 추경 예산안 편성

447억 원 추경예산(안) 제출  
저출산 극복 토대 마련 매년

칠곡군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저출산 극복 토대 마련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제30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4일 최종 확정된다. 추경(안)은 본예산 7163억 원보다 447억 원(6.2%)이 증가한 7610억 원 규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 20억원, △칠곡군 농어촌버스 및 화물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44억원 2300만원 △북삼역 진입도로 개선사업 26억 4600만원 △북삼읍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2억원 및 칠곡할매

문화관 건립 10억원 등이다. 저출산 극복 사업은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 5600만원 △아픈아이돌봄센터운영 4000만원 △석적국민체육센터 및 북삼국민체육센터 마을돌봄터 24시 연장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6700만원 △누리과정 5세보육료 추가 지원 1억 2000만원 △외국인아동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1억 800만원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 2억 3400만원 △산후조리비지원 3억 5000만원 등이 편성, 제출됐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사회안전망 강화, 저출산 극복 토대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형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군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 회룡포 봄꽃축제 경북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관광객 8만명... 대성황  
봄기운 느끼는 장소

2024 예전의 봄, 회룡포 봄꽃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는 지난달 20~지난 6일까지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 일대에서 열렸다. 축제 개장일인 첫 주말에는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약 1만5000명이 방문,

3주간 총 8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회룡포 봄꽃축제가 예천군 대표 봄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 축제는 2.7ha의 유채꽃밭과 2ha의 청보리밭, 울대길 꽃잔디밭 비롯해 다양한 봄꽃을 조성해 봄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는 힐링 장소로 주목 받았다. 회룡포 마을 입구에 가로 10m의 거대한 용모래 조형물은 남녀노소가 가지 않고 많은 관광객들이 인증샷을 찍기 위한 대기행렬로 진풍경이

펼쳐졌다. 백사장을 활용한 모래 낚시터, 모래성 깃발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푸드트럭, 플리마켓, 7080추억의 노래, 색소폰 공연, 미로공원 체험은 남녀노소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회룡포 봄꽃축제가 전국의 대표적인 봄꽃축제로 인지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명욱 기자

## 드론봇의 치열한 전투... 달라진 전장 체험

민·관·군 행사 300여대  
드론 펼치는 야간 드론  
아트쇼 장비·물자 관람

'제2회 2작전사령관대 드론봇 전투 경연대회'가 7-9일경 경운대에서 열렸다. 경연대회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경운대·금오공대가 공동주관, 경북·구미 방산 혁신클러스터 사업단과 경북대가 후원했다. 이번 대회는 지능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의 공감대를 형성, 드론봇 관련 전투발전 주요 창출과 민·관·군·산·학·연의 협력을 통해 점

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도시지역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로봇 헬리콥터, 드론 배틀, 드론 레이싱 등 드론봇 전투경연대회와 30여 개의 방산기업이 참가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시회, 민·관·군 화합 문화행사가 진행됐다. '드론봇 전투경연대회'는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적 활용' 분야와 '스포츠 참여형' 분야를 나눠 총 8개 종목이 진행됐다. '군사적 활용' 분야에는 폭탄 투하·감시정찰·AI 드론·기체 장차·로봇 헬리콥터 등 5개 종목 '스포츠 참여형' 분야에는 드론 배틀·드론 레이스·드론 축구 종목이 진행됐다. 이은진 기자

'출산은 행복, 육아는 보람'  
민고말기는 보육환경 조성



지난 2월 이강덕 포항시장이 '늘푸름마을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포항시는 공공 보육 서비스 영역 확대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정책에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새벽반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 돌봄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새벽반어린이집 운영은 맞벌이가정 증가로 취약 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돌봄 시간을 확대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7-9시까지다. 취약 시간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특히 맞벌이가정의 육아 부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도 확대한다. 노후 CCTV 전면 수리 교체 등을 우선 순위를 두고 시 자체 예산 4억 원을 투입해 보육시설

250개소에 비용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방지 및 교사의 교권 보호 등을 위한 안전시설을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도 지원으로 3-5세 보육료 지원(인당 월 28만 원)과 시 예산으로 0-2세 보육료(인당 월 20만 원)를 지원한다. 외국인 아동들도 동등하게 보육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부모 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빈틈없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일 어린이집에 쌀, 계란, 과일 등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일괄 정기 배송하고 있다. 정창명 기자



###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올진

# 영덕군, 제14회 물가자미 축제 성황리에 폐막

#### 청정 지역 특산물 물가자미 인상적인 맛과 레시피 선보



#### 영덕군, 경계선 지능 청소년 토론회

영덕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농어촌지역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일 여성회관 1층 교육장에서 '기다림의 미학'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대환(가정지원과장) 소장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상을 경험한 청소년이나 정서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 관계기관들과 연계 협력해 상담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 청송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청송군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관리책임자 및 교육희망자 56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 청송군보건소교육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했다.

교육은 경북도 심폐소생술 교육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센터)의 방문교육으로 진행됐다.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관리 앱 사용 방법 등 실제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실습 위주로 진행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응급상황 발생 시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도孝 행복꾸러미 전달 화양읍, 5월 가정의 달 맞아

청도군은 지난 3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마음을 드려효(孝) 행복꾸러미 전달식을 가졌다.

마음을 드려효(孝) 행복꾸러미 전달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서로를 배려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화양읍 특화사업으로 계획됐다.

대상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 100가구로서, 케이션과 행복꾸러미(죽류 7종)를 전달했다.

제14회 영덕 물가자미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가자, 미래로! 2024년 축산항 물가자미축제에서 맛의 여행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축제엔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한 각계 인사와 1만 2000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축산항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축제는 지난해보다 핑거푸드존을 확대 조성해 물가자미를 활용한 유린기, 탕수육, 파스타, 초밥, 스테이크, 가지 말이 튀김 등 특색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키즈존을 비롯한 맨손 물고기잡이 체험, 신상 가지미 낚시대회, 어선 승선 체험 등은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역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새물길 서포터즈'의 개막공연 등이 펼쳐져 역동적인 에너지로 축제의 흥을 돋웠다.

정장기 영덕 물가자미 축제 추진위원장은 "이번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물가자미를 활용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축제로 준비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가족과 함께 축제장을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체험하고 문화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축제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욱 알차게 편성하겠다"고 했다. 조여은 기자



사진은 제14회 영덕 물가자미 축제 맨손 물고기잡이 체험하는 어린이 모습.

## 울진의 숲 경북 대표 산림관광 상품으로~

#### 울진군 산림소득사업 2025년 신청접수

#### 24산림관광활성화 사업 성료 우수한 산림 알리기 위해 진행

울진군이 2월말부터 코레일관광개발(주)(이하 코레일)과 함께 추진한 산림관광 활성화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사업은 울진의 우수한 산림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 청송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 자산형성 근로의욕 고취

청송군은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과 자립 촉진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10만원(기초수급자·차상위 30만 원)의 근로

백암산림치유센터, 금강송에코리움, 구수곡자연휴양림에 방문, 숲체험 및 치유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여행 상품을 지원한다.

코스는 서울역을 출발, 영주역까지 새마을호(지역대) 또는 팔도장터 관광열차 등을 이용, 연계 차량(버스)을 통해 울진을 여행한다.

1인당 20~23만 원의 자부담 여행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상품으로 모객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한 관내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 이하)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30만원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이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2회 만에 100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 사업을 성료했다.

군은 올해 하반기 울진역이 개통 예정임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산림관광 활성화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산림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려 울진을 경북 대표 산림관광 상품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포(www.bokjiro.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 가능하다.

신분증과 함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최종 대상자는 가구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병문 기자

울진군은 오는 6월21일까지 2025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공모사업을 산림과에서 접수(사업예정지 기준)하고 있다.

관내 전문임업인의 안정적인 임산물 소득 증대 및 단기소득임산물 재배·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임업경영을 꾀한다.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신청일 기준 임산물재배 경력 2년 이상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가 대상이다.

보조(국비, 지방비) 60%, 자부담 40%로 전체 사업비 1억원 이상 7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크게 2개 분야로 산림자물생산지 조성사업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규모·현대화 지원이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숲 가꾸기를 포함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 기반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공모사업에 관내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 청도군,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단 격려

#### 노력 결실 볼 수 있길 기원 14개 종목 총 356명 출전

청도군과 청도군체육회는 지난 3일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출전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막바지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단을 찾아 격려했다.

김하수 청도군수와 김효태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차용대 청도군체육회장, 박순열 실무부회장, 김진성 NH농협 청도군지부장, 황동현 대구은행 청도군지점장과 군청 관공소 부사장이 참석했다.

국민체육센터와 태권도장, 볼링장 등을 찾아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소프트테니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볼링 등 출전선수단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기를 북돋웠다. 조여은 기자

김하수 청도군수는 "늦은 시간까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단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청도군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고, 엘리트 체육인들이 훈련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문화·예술·관광의 허브 도시와 더불어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출전선수단은 "군민들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도민체육대회에서 최선을 다해 우수한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10~13일까지 4일간 구미시 일대에서 열린다.

청도군은 14개 종목에 총 356명이 출전한다. 조여은 기자

### 어린이 날... 오늘은 내가 울릉경찰

#### 미아·가출 선제적 대응 20여명 사전지문 등록



울릉도 어린이날 대잔치에 김정진 울릉경찰서장이 직접 참여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울릉경찰서는 제 102회 '어린이날' 경찰차 시승·아동 경찰 근무 체험 및 경찰차 시승·SNS 인증 이벤트·사전지문등록·화목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김정진 울릉 경찰서장이 직접 행사장에 방문, 어린이 지문 등록을 직접 진행, 모범 어린이 표창을 수여하며 어린이날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어린이들에게 경찰이란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높여 주고, 직접 체험을 입어보고 경찰차도 시승하며 가족들과 같이 사진 찍고, 귀여운 경찰 캐릭터 양말 및 손수건을 선물, 행복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줬다.

사전 지문등록을 같이 운영, 미아·가출 등 선제적 대응에 20여명은 사전지문등록했다.

김 울릉경찰서장은 "어린이 날을 축하하고, 경찰서에서도 어린이날 행사 참여를 통해 국가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경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 맞이하여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